

‘2012 항행안전기원 사랑의 편지 공모전’ 수상작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지난해말 공모했던 ‘2012 항행안전기원 사랑의 편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중 대상 1편과 최우수상 7편을 소개한다. 이들 수상작에는 사랑하는 연인 또는 가족이 선원들을 망망대해의 바다로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며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바다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의 바다사랑 또한 잘 나타나 있다.

-편집자 주-

항해를 앞둔 당신에게

▶대상 한유영(일반인)

바람이 많이 차네요..추워진 만큼 당신이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지금 당신과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아쉽고 너무 아까워 그 시간을 붙잡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를 두고 배 타러 가는 게 잘한 결정인지 계속 물어보더군요.

크리스마스 새해를 제가 홀로 보낼 수 있을지, 무엇보다 제가 잘 기다려 줄지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인 것 같은데..

걱정하지마세요. 우리가 함께 보낸 2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더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에게 확인시켜 줄테니깐요.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꿈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저는 저보다 당신이 더 걱정입니다. 당신의 청춘을 배에서 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당신의 꿈을 존중해주고 싶지만 당신의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시기이고 인생이 결정되는 시기이니깐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청춘은 소중한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테니깐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랑 가족들이 챙겨줄 수 있지만 배에서는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가족이나 제가 더욱 그리울 텐데..

당신의 몸 고생과 마음 고생이 어떨지 그 정도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제가 걱정하는 만큼 크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물도 깨끗하지 못 할 테고 먹는 것도 마땅치 않을 텐데 영양섭취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험난한 파도의 출렁임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데 체력소모가 많아 영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테니깐요. 게다가 요즘 선상에서 해양사고가 빈번하여 더욱 걱정입니다.

당신의 꿈도 소중한데 바다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존중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당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해요. 안전한 경로로 항해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깐 더욱 불안하고 ‘바다에 당신을 맡겨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신은 저의 이런 걱정이 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다가 무섭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 없고 인간이 자연의 힘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저는 자연이 무섭고 또 바다위의 해적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런 걱정들로 당신을 걱정시키기 보다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할게요. 당신의 안전을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그리고 당신의 꿈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러면 무사히 당신이 저의 곁에 돌아오겠지요. 그 날을 저는 지금부터 그려봅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도 보고 싶은데 그 긴 시간을 당신 없이 보낼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봐도 그립고, 좋은 영화를 봐도 생각나고..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올 때에 더욱 그립고..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낄 때에도 당신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간직하려고요. 이런 그리운 마음도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당신이기에 느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요.

하루하루 일상에 이제 길들여지겠지만 그 빈자리는 항상 느껴질 것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의 준비를 혼자서 계속하고 있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제가 혼자서 당신을 그리워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적을까 해요. 그 날의 일어났던 일, 유난히 당신이 그리웠던 날, 그리고 달이 유난히 밝았던 밤, 유난히 추웠던 날, 큰 파장이 일어난 뉴스 기사까지도..

당신이 한동안 세상과 떨어져 바다위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당신에게 선물 하려고 해요. 한동안 부재해서 사회흐름과 변화에 대한 공허함을 못 느끼도록 제가 다 기록해 놓을게요.

당신도 바다 한가운데서 저를 그리워하겠죠? 심한 바다의 파도에 힘이 들 때나 바다를 바라보며 끝없이 외로울 때에도 저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는 존재, 힘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비록 고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가꾸고 신뢰가 있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조금만 참고 견디기로 해요. 우리가 결혼하는 날 그때 우리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당신의 꿈과 우리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비오는 겨울 밤 당신의 당신이..

‘2012 항해안전기원 사랑의 편지 공모전’ 수상작들

석해균 선장님께 보내는 선상가족들의 바람..새해에는...

▶최우수상(안전기원) 김비태(일반인)

석해균 선장님, 선장님을 뵈는 적은 없지만 정말 선장님의 안전을 기도했던 한 사람입니다.

기장 연화리에 있는 짓병등대의 명예등대장을 맡고 있는데 우연히 등대에서 직원들과 새해가 밝아오면 뭘 할까하며 수다를 떨다 갑자기 TV에서만 뵈던 선장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텐만의 여명' 작전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우리 선장님.

우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멀리 아프리카에까지 나가 직접 군사작전을 벌이는, 정말 강대국이 되었구나하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아는 무정부 상태의 해적 소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네요. 해적들은 게다가 영국과 두바이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조직망을 운영하고 있다죠. 러시아, 미국이 남기고 간 무기가 넘쳐나고 길거리에서도 로켓탄을 1,200달러면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말리아 해적 13명을 소탕했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선박의 태극기만 보고도 줄행랑을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를 자원의 보고로만,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만만한 기회의 땅으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국의 트롤선이 자기네 앞바다를 그물망으로 다 훑고 다녀 고기잡이도 못하게 됐고, 내전으로 먹고살 길도 막막해진 그들에게 유일하게 빵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해적들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미국, 프랑스 등 다국적 기업에서나 가능하다는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땀다고 하네요. 매장 추정치가 한 해 세계 다이아몬드 유통량의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소기업의 사장은 아프리카 오지에 머물며 학교를 세우고 현지인들의 고민 해결사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5년여 만에 서양 열강이 노리는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따낸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의 케냐 성공담, 한태권도 사범의 가봉 신화 등도 모두 다 현지인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도와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포된 해적 가운데는 우리 석해균 선장님에게 충질을 해댄 포악한 인물도 있죠. 그들이 우리의 책임은 틀림없지만 오히려 선장님이 그들을 우리의 평화 사절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해서 해적들에게 소말리아 주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변하게 하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설득해 현지에서 소말리아 주민들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에 앞장을 서신다면 앞으로 선미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향해 총부리를 겨눌 수 없을 겁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선장님은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선장님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영웅이 아니십니다. 보다 넓은 바다, 지구 반대편까지 선장님의 지혜를 베푸실 거라 믿습니다.

꼭 한번 뵈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김비태 올림

그리운 이름, 형부께

▶최우수상(안전기원) 김시내(일반인)

오늘 아침에는 차 유리에 하얗게 내린 성애를 제거하느라 지각을 할 뻔 했습니다. 한국은 벌써 한 겨울의 추위가 매섭습니다. 허겁지겁 옷깃을 여미고 출근한 뒤 컴퓨터를 켜니 불법조업에 살인까지 한 '중국판 해적'이라는 기사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어제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벌이던 해양경찰 특공대원 2명이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 때만큼 놀란 것은 아니었지만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면 형부 생각에 가슴이 떨립니다.

형부! 잘 지내고 계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언니가 형부께 보내는 선물을 같이 포장도 하고 가끔 안부 전화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에 직장 생활에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안부인사 전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먼저 안부 전화를 해주시고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시니 저는 정말 형부께 부족한 처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 휴가에는 형부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기 위해 저희 가족이 부산으로 갔습니다. 형부의 큰 빈자리가 우리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았겠지만 여느 가족처럼 휴가를 못보내는 언니에게 약간의 위안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여행 첫날 초현이와 래현이 그리고 성진이는 여름 여행답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낮에 너무 열심히 놀아서인지 세 녀석 모두 이른 저녁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언니와 저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 때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내야, 나 걱정되는 일이 있어.” 언니 표정이 자못 심각해서 저마저 진지해졌습니다. “초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빠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대. 선생님께 들었는데 친구들한테 새 옷이며 새 장난감을 어제 아빠가 사줬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야.”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이 놀랐지만 언니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의미없이 거짓말을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5살이긴 하지만 조숙한 편인 초현이가 아무이유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버릇처럼 “아빠랑 동물원 가고 싶다”, “운동회 때 아빠는 못 와?”라고 말하던 초현이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늘 아빠를 그리워하는 5살배기 초현이.

간혹 형부와 언니가 전화로 다툼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빠편이라는 초현이를 언니는 가끔 알뜰다고 합니다. 고녀석 뭘 아는지 2년 전 형부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잘해줬던 것에 보답이라도 하듯 늘 아빠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아빠를 제일 사랑한다는 초현이, 바로 형부의 든든한 백입니다.

든든한 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치 담을 때마다 형부 김치를 따로 준비하고 형부가 좋아하는 말린 문어를 보면 생각도 하지 않고 계산부터 하는 장모님이 있습니다. 당장 형부의 손이 필요하지만 멀리 계셔서 할 수 없는 일들의 총괄 책임자인 처님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부의 안부를 제일 먼저 챙기는 김서방이 있습니다. 아빠의 어부바가 제일 좋다는 형부의 마스코트 래현이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형부가 오신다고 형부의 옷가지며 화장품 등을 챙기느라 부산을 떨며 세상에서 형부가 제일

‘2012 항행안전기원 사랑의 편지 공모전’ 수상작들

매력적이라고 자부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힘들고 장한 일을 한다고 엄지 손가락 추켜 세워주는 처제, 제가 있습니다.

형부! 드넓은 바다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든든한 백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편지를 쓰거나니 뒤늦게서야 형부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늘 건강하다 생각

했는데 요즘들어 몸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이면 형부가 오신다고 들었는데 돌아오시는 그날은 꼭 부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부! 축스럽지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처제 김시내 드림

미지의 바다를 향한 아들의 출항기

▶최우수상(안전기원) 이준희(일반인)

아카시아 꽃향기 바람에 날리우던 5월도 지났습니다. 강렬했던 여름태양도 우리들의 몸을 단련시켜 놓고, 우려 했던 태풍도 지나간 장맛비도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푸르던 나뭇잎도 울긋불긋 붉게 물들더니 한잎 두잎 낙엽되어 우리의 걸을 스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쌀쌀한 초겨울의 길목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들의 걸음걸이를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탈바꿈 속에서 미지의 바다 세상에 꿈을 실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애타는 마음으로 쌓여져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25살의 풋풋한 청년인 대학 4학년생으로 한 학기 휴학 중입니다. 아들은 해양문학의 꿈을 안고, 지난 5월에 감천항을 떠나 희망봉을 찾아서 원양어선을 타고 북태평양으로 풍치를 잡으러 떠난지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들을 차가운 바다로 보내놓고, 우리가족은 매일같이 아들의 무사귀향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초 삼호주얼리호가 해적으로부터 납치되는 사건을 비롯하여 빈번하게 해난사고들을 접하면서 방송에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나, 어선침

몰사고 등 해상관련 보도가 있는 경우는 가슴을 졸이면서 안녕을 기원하기도 한답니다.

아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보려고 미지의 바다에 대한 꿈으로 가득찬 아들의 출항기에 대한 사연을 이곳의 편지함에 가득 담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태평양의 망망대해에서 희망봉을 찾고 있는 아들 녀석은 물론 바다를 누비는 모든 선원들의 무사귀향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편지를 써내려 갈까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아들 녀석이 풍치를 잡으러 간다더군요. 바다가 있는 창원은 그 당시 해안가에 학 풍치 낚시가 붐빌 시기라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가려나 보다 생각하면서 별로 관심을 갖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더 지난 뒤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아들은 맨정신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는지 알코올이 약간된 상태에서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원양어선을 타고 풍치를 잡으러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들! 원양어선을 탄다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녀석이 원양어선을 타고 생사가 오갈 수 있는 험난한 바다의 세상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듣는 순간 멍해움은 부모로서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나 원

양어선을 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긴 즉슨, 지도교수님께서 강의실과 인터넷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배를 한번 타고 바다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녀석은 미지의 바다를 한번 탐험해 보고 싶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 했습니다.

아들은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2011년 지역신문인 경남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에 ‘마드리드 호텔 602호’란 시로 당선되어 문인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신춘문예로 등단을 한 뜻내기 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서 지도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재성이가 당선 시에서 보여 준 꿈은 ‘바다’ 였다면서 상상의 그림으로 바다를 논하지 말고 수많은 사연들을 접할 수 있는 넓은 바다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보아 문학의 날개를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거친 파도와 싸워가면서 고기를 잡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양어선을 택하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타고 갈 원양어선의 선장은 지도교수가 잘 아시는 지인으로 소설, 시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함께 동행한 선장께서도 흔쾌히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가기를 원하였고, 아들에게는 ‘명예 3등 항해사’의 승선직함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항해사’가 멋져 보였습니다. 원양어선은 생각하지도 않고 ‘명예 3등 항해사’만 나의 머리에서 뻗고 있었습니다. ‘하얀 모자에 하얀 제복을 입고 007가방’을 들고 승선하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시간차를 두고서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보니 녀석은 배를 타야겠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아들의 마음은 저 북태평양 속에서 노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대답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머시마로

태어나서 그것도 젊은 나이에 인생의 단맛 쓴맛을 보는 것도 삶에 박진감을 불어넣는 훌륭한 인생 공부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의 의지에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 한편에는 담담함보다도 뭔가 가슴이 미여 오는 전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군대 보내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군대는 국가에서 보살피 주었기에 믿음과 안도감이 있었지만, 저 북태평양 망망대해의 차가운 물결위에 지식 높을 보내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다면서 울먹이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항해가 비록 꿈일지라도 바다에 대한 열정은 항상 뜨거워 보였습니다. 녀석은 바다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아 지난해 여름 해양문화재단에서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항해하는 13박 14일의 ‘해양영토대장정’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늙름해 보였습니다. 녀석은 그때부터 바다를 더욱더 짝사랑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승선하는 날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의 부산항을 찾았습니다. 1등 항해사는 우리 일행을 반겨주면서 아들이 배를 타도록 어떻게 어려운 결정을 해주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항해사의 안내로 아들이 타고 갈 배를 보았습니다. 나 역시 원양어선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처음이라 궁금했습니다. 450톤이라 하는데 그렇게 큰 배로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또한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배로 보였고, 선실은 비좁고 협소했습니다. 7개월이란 긴 여정을 아들과 함께 해야 할 배를 보고는 이제 까지 ‘3등 항해사’만 자리잡고 있던 내 머리가 하얗게 변해 왔고, 가슴이 쿵하게 내려앉는 무어라 표현 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에게는 이제껏 풍치 배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명예 3등 항해사’만이 나의 머리를 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서야 뒤통수를 쿵 맞는 것 같았습니다. ‘명예 3등 항해사’ 이제야 현실이 보이더군요.

아들 녀석이 힘든 여정을 선택하였고, 하얀 제복이 아

‘2012 항해안전기원 사랑의 편지 공모전’ 수상작들

닌 작업복을 사주어야하는 것도 이제서야 보이더군요. 아이 엄마는 아들에게 지금이라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은 씩씩했습니다. 속으로는 미지의 세계를 탐한다는 걸 무서워 했는지도 모르지만 겉으로는 너무나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하얀 제복이 아닌 작업복을 사야하는 부모의 심정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작업복, 안전화, 모자, 양말 등을 구입하는 찰나의 시간이 정말로 자식을 먼 바다로 보내는구나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초록색, 청색, 남색으로 3벌 고른 가격을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이 말하는 가격 그대로를 지불하였더니 녀석은 흥정도 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했다면서 한 벌에 5천원씩은 더 주고 샀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니 단돈 1원도 깎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는 아이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원양어선 선원 가족들이 출항할 때 마다 이와 같이 마음쓰린 고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출항을 하는 날입니다. 아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늘도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천항의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려는 듯 푸른 양탄자를 깔아놓은 포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참고 참으면서 아들을 배웅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여정 속에서 외국인 30명과 내국인 7명이 만선을 바라면서 지난 5월 27일 감천항을 떠나 북태평양을 향해 풍치를 잡으러 육지를 떠났습니다. 출항하자마자 나는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정이지만, 바다와 싸우지 말고 즐기라’고 운을 띄워주었습니다. ‘아들아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고,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일정이 되기 바란다. 세계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주변 환경 또한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기에 너를 어렵고 무척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풍치잡이는 힘들고 어려움이 함께하기에 너를 더 성숙하게 하고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상이 될

것이다. 부디 몸 건강히 돌아오기 바란다.’ 이 순간 나의 가슴속에는 크나 큰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번 항해는 책이나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꿈 같은 항해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출항 후 지금까지 아들과 인공위성을 통해 5번의 국제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원들의 최고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배 멀미 일텐데 멀미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밥도 잘 먹으며 선원들의 환경에도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전언을 합니다.(이 전언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모의 마음 참 아파옵니다.)

원양어선 선원 대부분이 외국인 것을 보면 그만큼 위험도가 따르고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내국인 중 젊은 친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나라가 과거보다는 잘 산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지기도 합니다.

배를 타는 것은 각자의 사연들이 있겠지만, 요즘 국내인으로 원양어선을 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수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고서 망망대해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선원들이야말로 산업일꾼이자 순수한 애국자라 칭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지금도 먼 바다에서 풍치,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하여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선원들에게 안녕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또한 선원 가족 모두 행복과 즐거움이 샘솟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아들의 원양어선 승선으로 인해 낯설기만 했던 선원들과 가족의 삶에 대하여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육지든 바다든 인생이라는 삶은 얼마나 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열정적이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알찬 삶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아들은 7개월 가까이 육지 한번 보지 못하고, 땅 한번 밟지 않은 채 망망대해에서 숨이 찰 정도로 출렁이는 바다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다의 가르침이 등대되어

아들의 앞날에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의 불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이 망망대해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삼아 열심히 어획고를 올리는 선원들의 용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는 수많은 선원들이여!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들 파이팅! 원양어선 선원 파이팅!

사랑하는 당신에게

▶최우수상(바다사랑) 지민철(일반인)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제 제가 탄 배는 중동만을 돌아 나와서 당신이 계신 동쪽 울산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짐을 내리고 나면 당신과 만나게 되겠지요.

마지막 사우디의 라스라판 항구에서 원유를 실으면서 한 동안 갑판 위에서 서 있다가 해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업 송유관 위로 아지랑이가 잔잔히 이글거리고, 뒤로는 저녁 노을이 함께 서서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노을빛을 반딧불인양 잡아다가 병속에 넣어 두어 당신이 잠든 방안에 두면 보고픈 저의 마음인 듯 당신 머리맡 위에서 빛을 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움에 맞아 노을처럼 별장게 물든 저의 가슴이 좀 진정될까도 싶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어난 적이 많았습니다. 반쯤 몸을 일으켜 어두운 방안의 낮은 침상에 걸터 앉아있으면 기관실에서 올라오는 엔진 소음이 파도의 울림들과 함께 그리움의 바늘이 되어 자꾸만 저를 찢어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 방안 어둠의 알갱이들은 저를 침상으로 내려 앉히며 다시 재우려하였지만 제 방 등근 창 너머엔 이미 동이 트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배를 탄지 오래되었지만 이 외로움은 쉽게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요 사이 당신에게 편지를 하려고 하면 잉크는 그저 중

이에서 번지기만 하고 도무지 편지가 써지지 않았습다. 하고 싶은 말들은 모두 다 번지고 번져서 종이를 점차 파랗게 물들이며, 그저 그림자, 사랑한다는 반복하곤 하였습다. 하고픈 말보다 그리움이 더 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 향하는 항로에서 저녁하늘마다 만나게 되는 뱃머리 위에 걸려있는 네모난 모양의 오리온 별자리를 보고 있으면 마치 창밖에서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 속으로 자꾸만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당신 이름을 자꾸 불러 봅니다.

그러면 뱃고물이 남겨둔 추진기의 하얀 물보라가 떨어져 있던 시간을 없애려는 듯 소리내어 부서집니다. 이렇듯 뱃머리가 당신이 계신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 이미 몸은 그 곳에 닿아 당신과 재회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보름 남짓이면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좋아하는 아파트 단풍나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겠지요. 바다 위에선 들을 수 없던 당신 목소리를 같이 들으며, 함께 서로의 꿈과 희망을 얘기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모여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픈 당신, 사랑합니다.

2003. 5월 어느 날 페르시아만에서 울산으로 향하며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2012 항해안전기원 사랑의 편지 공모전’ 수상작들

나의 인생의 멘토이자 자유로운 해양관광학자, 삶의 방식을 통해 롤 모델이 되어주시는 우주 최고의 교수님 David Paul Woods 교수님에게 보내는 글

▶최우수상(바다사랑) 김경문(대학생)

1. 바다의 푸른 눈빛을 가졌던 그 학자는 자신의 마음과 꼭 닮은 넓은 바다를 건너 부산에 도착하였다. 오래 전부터 알고 싶었던 바다의 비밀을 찾기 위한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 닿았던 부산, 그 바다의 도시에서 그는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물고기 자리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전세계의 바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연구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리가 만난 지 벌써 햇수로 4년을 눈앞에 두고 있군요. 교수님께서 처음 우리학교에 강의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제가 교수님의 첫 학생으로 강의를 들던 그때가 생각합니다. 막 군대를 제대한 철없고 혈기 넘치던 학생과 새로운 환경에서 연구자로서의 의욕이 넘치던 해양관광학자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천방지축으로 젊은 객기 밖에 없던 저를 좋게 봐주신 교수님 덕분에 우리의 인연은 시작 되었고 그렇게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어시스턴트 학생으로 함께 지낸 지도 벌써 3년 째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대화와 가르침, 마치 전세계의 바다가 우리의 연구 자료인듯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며 부산 해양관광에 대한 토론을 해왔던 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항상 연구실에서 생생히 보이는 남향대교와 바다를 바라보며 부산의 바다에 우리의 환상과 개발 계획을 대입해보던 그 시간은 내일을 확신 못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저에게 미래의 부산해양관광 연구자로서의포부를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2. 전세계의 해양지도와 관광지도로 벽면을 장식한 연구실은 마치 교수의 연구 장소라기보단 유쾌한 배낭여행

자의 게스트 하우스처럼 보인다. 이곳을 가득 메운 커피향이 점점 열어 지며 창 밖의 바다로 해가 부서지기 시작할 무렵 바다를 닮은 눈빛의 교수님은 나에게 물었다.

“경문, 앞에서 말했듯이 관광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경험]의 연출이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산의 바다에 그런 멋진 경험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라네. 자 이제 대답해보게. 자네가 생각하는 미래의 부산바다에는 어떤 멋진 경험이 존재하는가? 자네는 관광학도로서 어떻게 부산바다의 멋진 기억을 방문자에게 제공하겠는가?”

기습적으로 질문하는 교수님의 스타일은 여러 번 겪었지만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다. 식은땀과 긴장감, 내 머리 속은 송정해수욕장부터 송도해수욕장까지 거친 후 북항과 남항 그리고 가덕도의 앞바다를 건너 광안리에 이르러서야 무언가 막연히 떠오른 말을 내뱉기 시작한다.

“요트 마리나?”

약간의 침묵 후 교수님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와 미묘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며 말하신다. “일주일 이 시간까지 부산의 요트산업과 마리나의 대중화를 위한 제안서

를 PPT 20장 이내로 제출하게. 물론 워드 보고서 형식으로도 역시 20장이네. 근거로 제시할 데이터의 첨부는 당연한 것이니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지?”

“.....”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자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저에게서 보셨는지는...특별히 무언가 가지고 싶은 꿈이 없던 저에게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 경험 연구자의 꿈을 심어주신 분도 교수님이시고 실제로 그것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 및 준비를 도와 주신 분도 교수님이십니다. 2년 연속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 하실 만큼 학생들을 아끼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따르는 인기 많은 교수님께서 저에게만 특별히 과제나 토론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러한 특권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송구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당신의 자유로운 마인드와 아이디어로 부산의 바다를 멋지게 만들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 멋진 지혜와 발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끄러운 점 중 하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저의 인성과 감지 못한 생각이 교수님의 가장 가까운 학생으로서 교수님의 이름을 어지럽히고 다니진 않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인 것이 미약하나마 교수님과 함께 있는 몇 년 동안 약간이라도 성장하고 있는 저를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아마추어적이며 어디 가서 해양관광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말을 꺼내기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교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교수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부산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닦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히 느낀다고 말해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저의 20대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자갈치 수변공원과 회센터는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호기심에 뒤섞여 그곳을 생활의 터로 여기는 [자갈치 아지매]와 [횃집아재]의 에너지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종종 일과가 끝난 후 부민캠퍼스에서 국제시장을 거쳐 자갈치 수변공원까지 가는 사제 간의 짧은 소풍을 가졌다. 사실 소풍이라기 보단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매력을 직접 관찰하는 수업의 한 방법이었던것 같다. 항상 그곳 그러니까 부산바다와 사람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산바다의 에너지를 교수님은 사랑하셨다.

“결국은 바다가 될 것이네” “네?” 바쁜 회센터 일꾼들 사이에서 교수님은 말을 꺼내셨다.

“부산의 매력과 에너지의 시작은 바다였었지. 부산의 이미지, 브랜드, 에토스 모두 그곳에서 시작되었지. 사람들의 기질마저도 말이네. 마이스, 메디컬, 영화 등 부산엔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고 이들 모두 유용하지만 결국 부산이 가진 최고의 매력은 바다네. 이 바다에 어떤 경험을 부여하는가, 어떤 매력을 끌어내는가가 자네의 일생의 연구 과제가 될것이지. 학자의 눈과 아이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는 법을 고민하게”

교수님께서서는 특별히 부산바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걸보기에만 예쁜 휴양지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바다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열정과 바다를 닦아가는 젊은이들의 열기 이 모든 [부산사람들의 기질이 부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세계 많은 곳을 돌아 보신 교수님께서 유독 부산바다와 그 에너지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하셨지요. 물론 저도 동감합니다만 부족한 저는 그 비밀을 아직은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저의 부족함을 채워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저에게 교수님의 모국에서 더 많은 바다를 보고 더 많은 바다를 공부하여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건너온 바다를 제가 다시 건너가서 그곳에서 저의 학업을 마친다면 꽤 긴 시간이 흘러 있겠지요. 조금이나마 해양관광학자 비슷한 표정을 가지고 교수님을 다시 부산에서 뵈 수 있다면 제자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2 항해안전기원 사랑의 편지 공모전’ 수상작들

교수님께서 저에게 부산의 해양관광에 족적을 남길 만한 위대한 학자가 될 포부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위대한 해양관광학자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저의 소박한 바람이라면 그저 유학 잘 다녀와서 교수님 앞에서 지금처럼 부산바다를 바라보며 어떻게 더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지 고민하는 것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교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지는 요즘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여정에 대한 설렘과 기대도 많지만 그곳에서 교수님처럼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 분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염려는 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머

그잔에 쓰여 있는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태도를 가슴 깊이 새기고 갈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씩씩하게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학자의 시야와 아이의 마음, 그리고 프루다운 모습을 배워 오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학자나 교수 비슷한 성품을 갖추어서 지금 여기 부산 앞바다의 연구실로 돌아올 때까지 건강히 계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옆자리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저도 열심히 학업에 충실하여 매력적인 바다의 비밀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항상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금처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철없고 부족한 제자 경문 올림

아버지가 계신 저 바다를 향해 날린다

▶최우수상(바다사랑) 김보건(대학생)

지금은 기말고사 시험기간입니다. 똥줄 타는 시간입니다. 그게 대수냐? 나는 따뜻한 도서관에서 샤프를 놀리지만, 칼 같은 바닷바람과 함께 저 바다를 하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항해 안전을 기원하며, 전해질지도 모를 편지 한 장 날립니다.

아버지. 나는 바다가 싫었습니다. 아버지를 묶어두는 바다가 싫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바다에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집에 와서 한다는 말씀, “내를 안 닮은 것 같은데?...”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머니는 22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 욕을 할 때면 그 얘길 꺼냅니다. 나는 바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가 아들의 얼굴도 삼켜버렸겠구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軍)에 입대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바다에 있었습니다. 훈련소의 전우들에게 부모님의 편지가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망망대해 한복판에 서있는 아버지는 내게 편지 한 장 해줄 수 없었습니다. 또... 바다가 싫

었습니다.

몇 달 전,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부자(父子)가 만나 포옹을 나누고 돼지고기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릴 적 팔씨름을 하면 ‘70살까지는 거뜰하니까 팀비지 말라’ 시던 아버지의 그 굵은 팔뚝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배를 타실 겁니까?’ 라는 내 말에 ‘니 공부는 마쳐 줘야지...’ 라고 하십니다. 그 날 나는 베게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더 이상 ‘바다가 싫어요’ 라며 칭얼댈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부모님 덕분에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컸습니다. 훈풍이 드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며 따뜻한 밥, 좋은 보약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릴 땐,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감사하다는 ‘생각’ 은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덕분이었던 걸 왜 ‘가슴’ 으로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아버지는 또 바다로 갔습니다.

나는 여자 친구와의 통화는 밤낮으로 하면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는 걸 아까워했던 철부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바다에 계실 때, 저 바다 건너 나라에 계실 때는 통화가 안 되는걸 알면서도 가끔 번호를 눌러봅니다. 어느 날 통화 연결음이 들립니다. 육지에 가까이 오셨나봅니다. “제일 먼저 아들한테 전화해야지 뭐하세요?” 라고 응석을 부려봅니다. “허허, 지금 전화하려 했다 자숙아” 하시며 피식 웃어넘깁니다. 이제 아버지는 출항하시기 전에, 언제쯤 국내에 올 것 같다고 내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도 나는, 예정된 날이 아니라도 단축번호를 꼭 누릅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바다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친해지려 합니다. 아버지가 어딘가 계실 저 바다, 아버지를 떠받들고 있는 저 바다와 친해져 사랑하는 아버

지를 부탁하려 합니다. 가끔 뉴스에 해양선박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뜨끔하지만, 바다와 친해지면 불안을 덜 수 있겠지요. 아버지. 아마 송년회도 같이 못하겠지요? 새해 일출도 같이 못 보겠지요? 그래도 마음은 항상 함께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우리가족 모두 승승장구하길 바다에 빌어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토록 보고 계시는 그 넓은 바다. 그만큼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껏 품은 저 푸른 바다. 그만큼 저도 세상을 품겠습니다. 저 바다 먼 곳으로부터 오지만 너무나도 강렬히 느껴지는 그 사랑. 그만큼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11년 12월 10일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큰아들 올림.

바다에게

▶최우수상(바다소망) 현준호(학생)

바다야 안녕? 나는 너의 품에서 자라온 현준호라고 해. 나는 너의 대해서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어. 나는 아직 14년밖에 안살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난 너를 보면 참 행복한거 있지 ㅋㅋ

내가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 월급이 많진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다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날 다리를 다쳐 오신거야. 배를 오르다가 그러셨데... 그런 이후로 아버지께선 집에서 몇 달을 누워 계셨어. 그땐 난 니가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너를 매우 싫어했어.

그리고 몇년뒤 수영장을 가게됐어 거기서 참 좋은 경험을 하게되었지. 그리고는 다시 물을 좋아하게 됐지.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친구들과 해운대로 놀러갔어. 여름인데도 너에게 들어가면 정말 추워서 모래사장에만 누워 있었어.

그리고 해가 질 녘에 노을에 비치는 너를 보니까 반짝이는 것이 웬지 우주에 은하수 만큼 예뻐. 어릴땐 그래서 순수한 마음 때문인지 심심하기만 하면 매일 바다로 가자고 하던 생각이 나네. ㅋㅋ 그리고 난 너에게서 나는 그 고유의 향기를 맡으면 웬지 내 안에 있던 스트레스가 싹 내려가더라. 근데 지금은 참 너가 상태가 안좋아져 있더라...

이곳저곳에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런 너를 보면 참 내맘이 아프기도 해.. 참 너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서 많이 사람들을 중요하겠다.. 그래도 좀 이해해주고 너의 순수한 푸른빛을 계속 유지하길 바래.^ 나도 가끔 여름에 해양학교가서 너를 위해 봉사도 많이 할게 ㅎㅎ. 그럼 안녕~! 다음에도 편지쓰게 ㅋㅋ.

2011년 12월9일 부산 서중학교 너를 사랑하는 준호 씀